

# 북조선로동당의 당원확장과 당의 변화

이주철

## 1. 들어가는 말

북조선로동당은 1946년에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과 조선신민당이 합당하여 이루어진 북한사회의 영도정당이었다. 북조선로동당(이하는 북로당으로 줄임)의 확대·강화 과정<sup>1)</sup>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추진하는 주체와 북한사회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해방 직후 소련군의 영향력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견제되었다면, 1946년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과 토지개혁의 성공적인 실행을 거치면서 조선인에게 주도권이 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북로당의 성장에 따라 소련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조선인에 의한 국가건설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북로당 당원들의 참여과정과 이들이 북로당 안팎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였다.

동시에 하부에서 당의 사업을 수행한 북로당원과 김일성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초기에는 소련에 의해서 '피택된' 면이 컸던 김일성의 권력강화는 이들 하부 당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생각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고는 소련의 역할보다 북로당의 운영과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 당원확장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방인후, 이종석, 서동만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방인후, 『北韓 '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서울: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서동만, 『北朝鮮における 社會主義體制의 成立(1945~1961)』(동경대 박사학위 논문, 1995).

## 2.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당원확장

### 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성립과 당원 실태

1945년 8월 일제 패망 직후,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었고 남북한은 미국군과 소련군이 진주하여 각각 다른 정세가 진행되었다. 일제하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던 오기섭·정달헌·주영하(함남), 김재룡(함북), 현준혁(평남) 박군·백용구·김재갑·김인직(평북), 김덕영·송봉옥(황해도) 등의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sup>2)</sup> 평양(현준혁)을 제외한 함흥, 원산, 청진, 신의주, 해주 등의 북한 주요 도시에서는 박헌영의 지시를 받고 있던 토착 공산주의자(국내계)들이 권력을 주도하였다.<sup>3)</sup> 이시기 북한지역에서는 현준혁과 오기섭이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인물이었다.<sup>4)</sup>

10월에 조선공산당 서북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정치투쟁을 거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하 조공분국으로 줄임)이 설치되었다.<sup>5)</sup> 조공분국의 성립과정에서는 김일성과와 국내계 공산주의자들간의 대립이 있었다.<sup>6)</sup> 김일성파는 12월 초순에 '공산당의 조직과 정치·행정 경험에 있는' 소련의 한인 3진이 도착함으로써 강화되었다.<sup>7)</sup> 이들은 김일성과 사

2) 스킨라피노·이정식 공저,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권(서울: 돌베개, 1986, 원저는 1972년 간행), 406~407쪽.

3) 앞의 책, 408쪽. 평양에서 초창기 당조직 활동을 주도했던 것은 현준혁이었는데 그는 다른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에 비해서 박헌영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같은 곳).

4) 앞의 책, 410쪽.

5) 조공분국의 성립과정에 대한 자세한 전개는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서울: 중앙일보사, 1993), 104~126쪽;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169~173쪽.

6) 박헌영은 조공분국 설치에 대한 소련(로마넨코)의 동조를 확인하고 이를 합의하였다(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앞의 책, 111쪽). 대회개최 수주일 전부터 김일성그룹은 소련의 지지와 지도를 바탕으로 북한전역에 김책, 안길, 김일 등을 파견하여 각 지방의 당조직에 접근하여 박헌영의 추종자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우위를 확보하려 하였다(스킨라피노·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권, 420쪽).

회주의 건설을 돕기 위하여 소련에서 온 사람들로 북한에서 당과 국가기관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였다. 9월에 입국하여 활발히 활동을 전개해 왔던 김일성은 소련계와 연안계의 지원을 끌어내어 12월의 조공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이하 3차 확집위로 줄임)에서 책임비서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토대로 당을 주도하고 당내외에 대한 통일된 지도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들 소련계는 출신지역상으로는 동일하지만 당내에서 독립적인 파벌을 형성하지 않았고, ‘공산당의 조직 원칙’에 따라 김일성을 적극 지원했다는 점에서 ‘김일성파’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sup>8)</sup>

조선공산당 서북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는 인텔리계와 소시민이 절대 다수인 당부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노동계급과 농민(특히 빈농)을 절대적 다수로 구성하도록 결정되었다.<sup>9)</sup> 초기의 조공분국 입당절차는 1년 이상 된 당원 2인 이상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노동자는 3개월, 농민은 6개월, 사무원과 학생은 1년의 후보 기간을 두도록 하였다.<sup>10)</sup> 이 같은 내용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조공분국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다.

3차 확집위 전까지의 조공분국 지도부<sup>11)</sup>는 공산당을 노동계급의 전위당이

7) 林驥, 『金日成正伝』(서울: 沃村文化社, 1989), 177~179쪽(林驥, 『北朝鮮王朝成立秘史—金日成正伝』, 自由社 간행물 번역본임);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앞의 책, 181쪽. 주요인물은 허가이, 박의완, 방학세, 김재육, 강상호, 이춘백, 김택영, 기석복, 김승화, 김열, 허빈, 김동철, 김찬, 김영수, 박영, 정국록, 교회만, 박창식, 안동수, 이동건 등이다.

8) 여기에서 쓰는 김일성파란 의미는 항일유격대 출신의 만주파에 소련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만주파가 과거의 항일유격대투쟁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김일성파에 속하는 소련계는 ‘공산당의 조직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9) 『정로』 1945. 11. 1., (1), 조공분국은 당조직 후의 중심문제를 당의 불세비키화로 정하고 불세비키당이 되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을 당에 들어오도록 하였다.(앞의 신문, 1945. 11. 7., (2), “중앙의 지시를 위한 투쟁”).

10) 앞의 신문, 1945. 11. 14., (1), “당원자격·입당수속·당원규율·세포(1)”.

11) 국내파인 오기섭은 공청을 정예화해 혁명세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310쪽). 오기섭은 분국창설회의에서도 “정예공산주의자에 의한 새로운 국가건설”을 주장했고, 3차 확집위에서는 “사회단체도 정예공산세력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310~311쪽). 오기섭의 생각을 국내파의 노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당원확장에 적극

며, 노동계급의 모든 단체 중에서 최고단체로 노동계급의 모든 단체를 지도한다고 인식하였다.<sup>12)</sup> 이러한 생각은 당원 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945년 10월의 북한지역 공산당원은 1,000명 수준이었다.<sup>13)</sup>

이후의 조공분국 당원수에 대한 통계를 알 수 있는 것은 1945년 12월인데, 3차 확집위에서 김일성은 공산당의 당원이 4,560명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일성에 따르면 각 도·군·시와 다수의 지방에 당위원회와 당세포가 조직되었지만, 당원에게 유일 당증이 수여되지 않았으며 공장, 제조소, 면들에는 아직 당세포가 조직되지 못하였다.<sup>14)</sup>

그러나 “조공 북조선분국 중앙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르면 해방 후 3개월간에 공산당원수는 7,000명까지 성장하였고 각 도·군·면 및 도시에 당 지도위원회들이 조직되었으며 많은 수의 공장, 기업소 및 농촌에 공산당세포가 조직되었다. 김일성의 보고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1945년 말의 상황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보고와는 달리 결정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이것은 당시의 조공분국 주도권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하튼 3차 확집위까지 당기관들은 당원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있었다.<sup>15)</sup>

당시의 조공분국 당원을 7,000명으로 보면 북한 주민 약 1만 명에 당원 7명 수준으로 조직이 미숙했다고 할 수 있다. 당원의 사회적 성분도 노동자 30%, 농민 34%, 지식인, 상업가 및 기타 성분 36%로 문제가 있는 구성이었다. 이처럼 노동자 당원이 적었으면서도 당기관 지도자들은 공장, 제조소, 탄광, 농촌으로 가서 군중들과 접촉하지 않았다.<sup>16)</sup> 초기의 공산당 지도부는 노동자조직

---

적이지 않았던 경과를 이해할 수 있다.

12) 『정로』, 1945. 11. 14., (2), “레닌의 공산당 조직원리개요”.

13)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21쪽.

14) “조공북조선분국 중앙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보고, 1945. 12. 17.”, 『북한관계사료집』 1(서울:국사편찬위원회), 3쪽.

15) “북부조선당 공작의 착오와 결점에 대한 결정서-조공북조선분국 중앙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결정, 1945. 12. 17.”, 『북한관계사료집』 1, 11쪽.

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한 것이다.<sup>17)</sup>

해주의 경우 시내 여러 기관, 기업소들에 당세포가 조직되었고, 당대열이 확대되고 있었지만 분파적 경향이 나타나 당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고 있었다.<sup>18)</sup> 해주시 당조직은 당 장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당에 받아 들여야 할 사람들과 받지 않지 않고 있었다.<sup>19)</sup> 황해도 봉산군의 경우 당원이 겨우 70~80명밖에 되지 않으며 많은 공장, 광산, 농촌들에 당세포가 조직되지 못하였다.<sup>20)</sup> 이런 상태로는 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당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 2) 3차 확집위와 김일성의 당원확장 추진

김일성은 당의 확대강화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당원을 늘리기 위하여 당 성장사업에서 관문주의적 경향을 비판하였다. 당조직의 확대강화는 조공분국이 독자적으로 국가건설을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었지만, 정치사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당생활 연한을 가진 당원만이 입당 보증을 설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당 성장사업은 불가능하였다.<sup>21)</sup> 입당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들도 보증인이 1년 이상의 당 이력을 가져야 한다는

---

16) “조공복조선분국 중앙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보고, 1945. 12. 17.,” 『북한관계사료집』 1, 5쪽.

17) 심지어 당원중에는 일제하에서 경찰서 서장이었던 자가 당위원회 비서로 있거나, 해방 전에 ‘파시스트 당원’으로 있던 자가 공산당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조합의 많은 지도지위를 비당원들이 맡았으며 공산당원이 적은 처지에 있었다(앞의 글, 3쪽, 6쪽).

18) “당대열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자—북조선 공산당 황해도 해주시 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46. 1. 10.,” 『김일성전집』 3, 21쪽.

19) “북조선 농민조합련맹 결성대회 준비를 잘할 데 대하여—북조선 농민조합련맹 결성준비위원회 일군 및 각 도 농민조합대표회의에서 한 연설, 1946. 1. 6.,” 앞의 책, 23쪽.

20) “당대열을 확대강화하며 당단체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북조선 공산당 황해도 봉산군위원회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46. 1. 13.,” 『김일성저작집』 2, 9쪽(김일성저작물의 인용시 가능한 한 먼저 간행된 출판물에서 인용하도록 하였다).

21) 앞의 글, 10쪽.

규정으로 인하여 입당에 제한을 받고 있었던 것이 이시기의 실정이었다.<sup>22)</sup>

김일성이 주도하는 조공분국은 1946년 초에는 입당 보증인의 조건<sup>23)</sup>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에 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오도록 하였다. 1946년 1월 15일까지 전 당원과 후보당원들에게 당원증을 주도록 하였고, 노동계급을 당에 인입하기 위하여 1년 이력을 가진 공산당원이 없는 공장, 기업소에서는 1년 이력을 가지지 못한 당원 2인 보증으로도 노동자들을 입당시키도록 임시로 허가하였다.<sup>24)</sup>

이어서 김일성은 노동계급과 도시와 농촌의 선량한 군중을 토대로 장성한 것, 공장, 제조소 및 기타 공업기업소 내에 당세포를 조직하고 도당부, 시, 군, 면 기타 당부 일꾼 양성배치에 특별주의를 돌릴 것<sup>25)</sup> 등을 요구하였다.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당원들이 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sup>26)</sup> 당정책의 말단 전달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1946년 초의 조공분국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당 성장사업을 위하여 투쟁경력이나 지식수준을 따지지 말고 계급적 각성도와 건국열의로 당원자격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였다.<sup>27)</sup>

---

22) “조공분조선분국 중앙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보고, 1945. 12. 17.”, 『북한관계사료집』 1, 4쪽.

23) 신당원의 입당 조건 : 노동자, 빈농은 정식당원 1인, 농민·수공업자·지식분자·공산당이 영도하지 않는 기관에서 일하는 하급자는 정식당원 2인, 각 기관에서 일하는 ‘고급사람’은 정식 당원 3인, 다른 당(예를 들면 민주당)을 떠나 공산당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1년 이상 당이력을 가진 정식당원 3인(다른 당원에서 보통 당원이던 사람은 도당위원회의 허가, 다른 당에서 책임지위에 있던 사람은 당 중앙의 허가 필요), 조선공산당 청진시위원회, “당의 생활”, 앞의 책, 68~69쪽.

24) “조공분조선분국 중앙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결정”, 앞의 책, 14쪽.

25) “조공분조선분국 중앙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보고, 1945. 12. 17.”, 앞의 책, 9쪽.

26) 평남 평원군 한천면 당세포 책임자의 수준은 매우 낮아, 일부는 글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당세포 회의의 보고서와 결정서를 쓰는 격식을 차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당세포 사업에 대한 지도를 잘하여야 한다—북조선 공산당 평안남도 평원군 한천면 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46. 2. 24.”, 『김일성전집』 3, 157쪽); 인제군당의 경우도 일부 부락세포에서는 회의를 하고도 문맹자가 많아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하기도 하였다(“인제군 인제면당 열성자대회 회의록, 1946. 9. 19.”, 『북한관계사료집』 4, 672쪽).

이상을 살펴보면 조공분국 3차 확집위까지는 국내계들을 중심으로 폐쇄(관문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음과 3차 확집위 이후 적극적인 당원확장 정책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김일성이 적극적인 당원확장 방향에 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인 입당정책이 실시된 것은 아니다. 조공분국의 통일전선정책은 공산당의 독자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원정책에서 계급성분이 전혀 다른 사람은 당에 넣지 못하도록 하였다.<sup>27)</sup>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던 조공분국에게 당 성장사업에서 당의 구성성분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1946년 초 노동자는 매우 적고 농민과 인텔리가 많은 비중이었던 당 구성성분은 당 개혁의 핵심과제였다.<sup>28)</sup> 이를 위하여 3차 확집위 이후 도당위원회 책임자가 당원과 후보 당원에 대한 당증을 수여하기 위한 심사사업에 직접 참가하고 도당위원회들에 대한 검열사업을 진행하였다.<sup>30)</sup>

심사과정에서 지주, 자본가, 친일분자, 투기분자, 탐위분자와 같은 비노동계급들이 출당당하였다.<sup>31)</sup> 그 결과 노동계급과 빈공농의 비율이 높아졌고, 심사 전 7,000명이었던 당원 중에서 1,400명이 출당되었다.<sup>32)</sup> 이 당시 대부분의 지방당, 도당 기관들이 국내계의 지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직정비

27) “당세포 사업에 대한 지도를 잘 하여야 한다”, 155쪽.

28) 조선공산당 청진시위원회, 1946. 4. 10., “당의 생활”, 『북한관계사료집』 1, 67쪽. 자본가, 상인, 부농은 근본적으로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부농이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되기를 각오하였고 자기의 계급이익을 버리고 혁명에 참가하겠다고 원하면 살펴본 후 당에 넣을 수 있다하여 이 규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이들을 믿을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당의 생활”, 68쪽).

29) “당대렬을 확대강화하며 당단체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북조선 공산당 황해도 봉산군위원회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46. 1. 13.”, 『김일성저작집』 2, 11쪽.

30) 각도에 조공분국 국원 1명, 도당위원회 제1비서, 노동자 당원 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서동만, “北朝鮮における 社會主義體制の成立(1945~1961)”, 29쪽.

31) “당내 정세와 당면과업에 대하여—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 1946. 2. 15.”, 『김일성저작집』 2, 44쪽.

32) “우리당이 걸어온 길과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함경남도당 확대위원회에서 한 연설, 1946. 4. 20.”, 앞의 책, 180쪽.

작업이 있게 되면서 국내계가 타격을 받았다.<sup>33)</sup>

### 3) 토지개혁과 당원확장 기반의 구축

일제하 조선농민들의 73.8%가 자작 겸 소작농이거나 소작농의 처지에 있었다.<sup>34)</sup> 이들은 평균 50~60%에 이르는 소작료와 잡세, 무보수의 노동 등에 시달려 북한 농가 총호수 100여만 호 중에서 59만여 호의 농가가 기아나 반기아 상태에 빠져 있었다.<sup>35)</sup> 해방 후 농민들의 토지개혁 요구가 분출함에 따라 북임위와 조공분국은 북조선농민연맹과 함께 연대하여 토지개혁법령의 제정을 추진하였고, 1946년 3월에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토지개혁의 결과 소작농들은 평균적으로 논과 밭 1.29정보를 분배받았고<sup>36)</sup> 모든 부채로부터 벗어날 있게 되었다. 이로써 소작농들은 생활이 개선되었으며,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인격적인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다.

토지개혁의 실시로 빈농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조공분국과 북임위에서의 김일성의 위상은 크게 강화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지도자로서만 알려졌던 김일성은 이제는 북한사람들에게 북임위 위원장, 즉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토지개혁 과정에서 조공분국과 김일성은 사업수행의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위상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조공분국과 김일성의 지지기반 확보와 위상강화는 소련군의 역할을 축소<sup>37)</sup>시키고 조선인에 의

33) 스킨라피노·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권, 431쪽.

34)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농림국장 이순근, “북조선 농업발전을 위한 제문제”, 『인민』 창간호(1946), 68쪽.

35) 북조선통신사, 『북조선통신』 8월 중순호(1947), 3쪽.

36)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46·1947·1948년도 북한경제 통계자료집』(1994), 135쪽.

37) 소련군의 역할을 시기구분 없이 보는 것은 잘못이다. 정권기관과 북로당(조공분국포함)의 발전과정에 따라 역할이 축소되어 가는 과정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1945년 10월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시민대회’의 김일성 연설문은 소련군이 작성하였고(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8쪽), 북임위가 수립될 때까지의 소련군의 역할은 ‘규정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북임위의 각 국은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북임위와



한 북한사회 주도의 계기를 가지게 하였다.

토지개혁의 성과로 많은 농민들이 조공분국에 입당하여 평안북도 당조직에 서는 3,272명, 나머지 5도당에서도 9,058명이 입당하였다.<sup>38)</sup> 토지개혁의 결과 농촌에 대한 조공분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각 부락마다 당세포를 조직하고 자 하였다. 이로써 당원이 크게 확장되어 1946년 4월에는 26,000명의 당원을 가지게 되었고<sup>39)</sup> 노동자, 농민의 당원 구성비가 높아졌다.

그렇다고 조공분국의 영향력이 군중 속에 만족스럽게 확보된 것은 아니었다. 당의 기관지가 대중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고, 많은 당원들이 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sup>40)</sup> 또 조공분국은 당 간부로 노동자와 빈·고농을 선발하기 위하여 과감한 등용을 시도했지만<sup>41)</sup>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46년 6월 김일성은 당의 중요한 과업을 ‘근로대중의 대중정당’으로의 확

---

소련군사령부에 제출해야 했다(“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북한관계사료집』 5, 151쪽). 그러나 1947년 2월 북조선인민회의를 거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소련군의 법적인 간여형식은 없어졌다. 북입위 수립 이후 소련군의 간여는 완만하게 축소되어 왔는데, 주목할만한 간여는 1947년 2월의 북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 대회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이 회의의 준비과정에는 슈티코프, 치스차코프, 로마넨코 등이 간여했는데(슈티코프, 『슈티코프일기 1』 1946. 12. 19., 1947. 1. 4.), 이 과정을 소련군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과정은 당연히 소련군의 북한주둔과도 관련이 되는 중대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과정은 소련군의 간여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소련군이 김일성과 북로당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인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38) “토지개혁사업의 총결과 금후 과업”, 『북한관계사료집』 1, 46쪽.
- 39) “우리당이 걸어온 길과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함경남도당 확대위원회에서 한 연설, 1946. 4. 20.”, 『김일성저작집』 2, 180쪽.
- 40) 평남도당 간부 훈련반 백여명 중 ‘민주주의 통일선서’, ‘민주주의혁명’을 안다는 자가 3~4명에 불과하였다(신전부장 김창만, “북조선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차 각도 선전부장회의의 총결보고 요지, 1946. 4.”, 『북한관계사료집』 1, 89쪽); 3차 확입위 이후 조공분국은 다수의 노동자, 농민을 당원으로 흡수하였으나 충분한 교육을 하지는 못했고 그 결과 일부에서는 ‘공산당이 무언지 당원이 무언지도 모르는 당원’까지 생겼다(“조공 북조선분국 중앙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결정, 1946. 2. 15.”, 『북한관계사료집』 1, 31쪽).
- 41) “당내 정세와 당면과업에 대하여—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 1946. 2. 15.”, 『김일성저작집』 2, 54쪽.

대발전이라고 밝혔다.<sup>42)</sup> ‘일부 공산당 조직’에서 이론·실천적으로 준비된 공산주의자들만을 당에 받아들여려 함으로 인하여 당조직의 확대사업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고 이론적 준비는 약하더라도 선진적인 노동자, 농민을 당에 받아들여 공장, 광산, 농어촌에 빠짐없이 당조직을 조직하고자 하였다.<sup>43)</sup> 이것은 김일성의 인민대중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며, 교양을 통하여 당의 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또 김일성은 과거에 사회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재 무력한 사람을 간부로 배치하는 것을 피하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유능하고 열성적인 사람을 등용하려 하였다.<sup>44)</sup> 이들 열성적인 청년당원들을 통하여 당 하부조직을 강화하고 하부조직을 재편하고자 한 것이다.

### 3. 북로당의 창립과 대중정당의 추진

#### 1) 신민당의 당원확장 과정

조공분국이 당원확장에 치중하는 동안, 1946년 2월 16일에 조선독립동맹에서 개칭한 조선신민당도 당원확장에 노력하였다. 조선독립동맹의 후신인 조선신민당의 초기 당규약에 따르면 당원의 자격은 만17세 이상 남녀로서 당원 2인의 추천에 의하여 지부위원회의 통과를 경유한 후 입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up>45)</sup> 이후 신민당은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당원 2인의 추천을 당원 1인의 보증으로 개정하였다.<sup>46)</sup> 당규약의 개정은 조공분국과 연령 규정을 맞추

42) “중앙당학교는 당간부를 키워내는 공산대학이다—중앙당학교 개교식에서 한 연설, 1946. 6. 3.”, 앞의 책, 246쪽.

43) 앞의 글, 247쪽.

44) “인제군 인제면당 열성자 대회 회의록, 1946. 9. 19.”, 『북한관계사료집』 4, 678쪽.

45) “조선신민당(전조선독립동맹)규약”, 『북한관계사료집』 26, 17쪽.

46) “朝鮮新民黨 規約修改 草案”, 앞의 책, 21쪽.

<표 1> 북조선 도별 신민당 당원 통계표(1946년 5월 중순)

도본부별	인원	시점	비고
평안북도	10,335(50.2%)	5월 중순 현재	
평안남도	3,042(14.8%)	"	
함경북도	200(1.0%)	"	은성, 청진 2군에 한함
함경남도	2,127(10.3%)	"	
강원도	1,726(8.4%)	5월 21일 현재	
황해도	3,178(15.4%)	5월 중순	
총계	20,608		

출처 : '조선신민당 중앙본부 조직부 통계', 『북한관계사료집』 26, 40쪽.

고, 당원확장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1946년 3월 15일 11,000명이던 신민당 당원수가<sup>47)</sup>—<표 1>에 따르면— 1946년 5월에는 20,60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즈음 신민당의 절대 다수 당원이 평안북도에 몰려 있었으며,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남도의 순으로 당원을 확보하였다.<sup>48)</sup> 신민당 당원도 많이 확장되어 1946년 6월 26일에는 35,000명이 되었고<sup>49)</sup> 북로당 창립시에 신민당 당원수가 9만 명에 달하였다.<sup>50)</sup>

위 <표 2>가 보여주는 각 군에서의 신민당 당체는 상당히 불균형적이다. 함경남도의 경우 당원 최다 군과 최소 군의 비는 35.3 : 1이며, 평안남도는 4개 군, 함경남도는 5개 군, 강원도는 5개 군, 황해 도는 1개 군이 당원 100명 미만이었다. 즉 신민당의 당원확장이 북한전역에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는 못

47) 소련군 제25군 민정국, “朝鮮の政治政勢に關する調書”; 서동만, “北朝鮮における 社會主義體制の 成立(1945~1961)”, 77쪽에서 재인용.

48) 신민당은 평안북도, 황해도를 중심으로 지방에 세력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권, 428쪽).

49) 소련군 제25군 민정국, “朝鮮の政治政勢に關する調書”, 77쪽에서 재인용.

50) 김창순은 공산당에 위압을 느끼던 사람들이 정치적 피신처를 찾기 위하여 신민당에 마구 몰려들었다고 주장한다. 김창순, 『북한15년사』(서울: 지문각, 1961), 97쪽.

<표 2> 각 도내 당원 통계(1946년 5월 중순)

도별	군별 평균	최고 3개 군 평균	최소3개 군 평균	최고	최소	최고 지역명	100명 미 만 군수	통계 시·군 수
평안북도	608	1,533	1,820	2,000	115	창성군	0	17개
평안남도	253	520	38	630	30	평양시	4	12개
함경남도	236	577	44	1,235	35	북청군	5	9개
함경북도	100			123	77			2개
강원도	133	255	44	410	32	화천군	5	13개
황해도	227	350	110	373	40	봉산군	1	14개

출처 : “조선신민당 중앙본부 조직부 통계”, 앞의 책, 41~43쪽 정리 작성.

했음을 알 수 있다.

## 2) 북로당의 창립과정

조공분국의 당원 확대는 신민당과의 합당을 통하여 촉진되었다. 양당의 합당을 추진한 것이 소련측이라는 것은 매우 단순한 해석이며, 양당의 주도세력이 이를 선택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sup>51)</sup> 표면에 드러난 절차에서는 1946년 7월 23일 신민당 중앙위원회에서 두 당의 합동을 제의하였으며 조공분국 중앙위원회도 이에 동의하고 양당연석중앙확대위원회(7월 28~30일)에서 두 당을 합쳐 북로당으로의 발전을 정식 결정하였다. 이후 8월 5일부터 각 도당확대위원회부터 최하부 세포총회에 이르기까지 합당사업이 진행되어 면구군시당(面區郡市黨) 합동회의를 거쳐 북로당 창립대회가 열렸다.<sup>52)</sup>

양당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조공분국은 ‘무산계급적 작풍’을 가지

51) 이종석은 신민당 결성시부터 양당의 합당은 예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183쪽).

52) 김주현, “북조선로동당의 탄생”, 『근로자』 창간호(1946), 37~38쪽, 41~42쪽.

고 있었고, 신민당은 ‘인텔리직 작풍’을 가지고 있었다.<sup>53)</sup> 양당연석중앙확대위원회에서 김두봉은 양당의 확대에 따라 하부말단에서 일부 마찰이 있었고, 그 원인은 조공분국이 지식층을 전체적으로 포용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sup>54)</sup> 반면에 김일성은 조공분국과 조선신민당의 합동이 두 당의 하부 말단조직사이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하였다.<sup>55)</sup> 그러나 신민당의 조직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말단조직에서는 다소 갈등이 없지 않았다.<sup>56)</sup> 양당의 통합은 하부조직에 있었던 마찰을 해소하고 근로대중의 분열을 막아야 할 필요성<sup>57)</sup>이 주요 원인의 하나였다.

조공분국은 “준비된 공산주의자들이 많지 못하고 노동계급이 청소하며 인민들이 일제의 악선전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sup>58)</sup> 이런 일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무마시키고자 했던 것도 합당의 또 다른 이유였다. 이것은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켜서 당 역량을 급속히 확대강화하려 한 조공분국의 입장에서 중대한 문제였던 것이다. 또 근로대중의 분열을 막고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 세우기 위해서는 합당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53)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들의 새로운 임무—북조선 공산당 및 조선신민당 중앙위원회 확대연석회의에서 한 보고, 1946. 7. 29.”, 『김일성저작집』 2, 321쪽. 신민당의 조직성은 소자산계급이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다(“조선신민당 제1차 북조선대표대회 보고서(초안)”, 『북한관계사료집』 26, 31쪽).

54) 김주현, “북조선로동당의 탄생”, 40쪽.

55)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들의 새로운 임무—북조선 공산당 및 조선신민당 중앙위원회 확대연석회의에서 한 보고, 1946. 7. 29.”, 『김일성저작집』 2, 317쪽.

56) “조선신민당 제1차 북조선대표대회 보고서(초안)”, 『북한관계사료집』 26, 31쪽.

57) 양당 하부말단에서 부분적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켰다(“당건설(강의요강)”, 『북한관계사료집』 10, 681쪽).

58) “현시기 나라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남북조선 공산당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46. 6. 26.”, 『김일성전집』 3, 515쪽.

### 3) 북로당의 당원확장 추진

양당연석중앙확대위원회에서 김일성은 “누구든지 광범한 균중을 전취하면 승리자가 되며 그뿐만 계급적 울타리를 벗어나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을 총집결 하도록 할 것”<sup>59)</sup>을 주장하였다. 김일성의 주장과 같이 북로당으로의 합당후의 당원정책은 다시 당원의 적극 확대에 있었다. 당원 확대를 추구하다보니 “당 내에 오가잡탕이 들어왔다느니 청당사업을 해야한다느니 하는 분란이 생겼지만”<sup>60)</sup> 창립 직후의 실정에서 ‘청당사업’은 유도되었다.

북로당 규약은 입당자에게 당의 강령을 승인하고 규약에 복종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일정한 조직 내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했다.<sup>61)</sup> 그러나 당원확장 정책은 북로당의 규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해도에서는 당원들의 일부가 당사자가 당원이 되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만큼<sup>62)</sup> 당원을 확장하는데 치중되었을 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입당당원의 심사는 당부 상무위원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상무위원이 책임지고 세포에 가서 심사결정을 하는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일도 있었으며<sup>63)</sup> 심사 없이 당원을 흡수하여 당내에 상인, 투기업자가 들어오고 직장세포에 가정부인이 들어오는 일도 있었다.<sup>64)</sup> 이러한 사례는 이 시기에 북로당이 얼마나 당원확장에 치중하였는가를 보여준다.<sup>65)</sup>

59) 김주현, “북조선로동당의 탄생”, 39쪽.

60) “로동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에서 한 결론, 1946. 8. 29.”, 『김일성저작집』 2, 384쪽.

61) 朴昌玉, “北朝鮮勞動黨 規約 解釋”, 『근로자』 3호(1947), 50쪽.

62) “북조선 로동당창립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 158쪽.

63) “평양시 동구역 당단체와 남포시 당단체의 당 장성 문제에 관한 당중앙결정 집행정형에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결정서, 1946. 11. 14.”, 『결정집』, 47쪽.

64) 앞의 글, 49쪽. 강계군 당단체에서는 매개 당원에게 2명씩 또는 당원 2명이 1명씩 흡수하라는 할당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강계군 당단체의 사업정형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결정서, 1946. 12. 4.”, 『결정집』, 66쪽).

현실적으로 북로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무장한 혁명가들만으로 당을 구성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민주주의적 과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자들이라면 다 북로당에 들어오도록 하였다.<sup>66)</sup> 즉 직장에서 생산능률을 올리고 농업수확고를 높이는 것을 북로당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삼은 것이다.<sup>67)</sup>

이러한 당원확장 정책은 혁명투쟁의 경험 대신에 경제 건설에서의 노동 성실성을 당원의 투쟁정력으로 대체한 것이다. 북로당의 신입당원 확대는 당의 하부조직에 변화를 가져왔다. 당원정책은 노동자·빈농성분을 높이는 것과 중요 산업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입당시키는데 중점이 주어졌다.<sup>68)</sup>

당조직 확장정책으로 함북에서는 북로당 세포조직에 착수한 9월에는 11일 만에 9,200명의 당원을 확보한 일도 있었다.<sup>69)</sup> 평양시 동구역 당조직의 경우 당원 확대를 위한 숫자목표를 세우고 1946년 9월 25일까지 각 세포 및 공장위원회에 흡수할 책임수량을 주었으며, ‘전 근로인민’, ‘애인과 부인’, ‘상인’, ‘다른 세포관계하의 사람’까지 흡수대상으로 하였다.<sup>70)</sup> 평양시 당부에서는 당원

65)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다. 합당 후 평남도 및 기타 당단체들에서 당 장성을 조합식으로 발전시키는 경향과는 반대로 황해도 당단체에서는 당을 공고히 하고 확대 강화할 목적이라며 당에 가입시킬만한 준비된 근로자들까지도 당대열에 가입시키지 않은 일로 비판을 받았다(“황해도당 당 장성과 신입당원과의 사업정형에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결정서, 1946. 10. 8.”, 앞의 책, 14~15쪽). 이 같은 상반되는 문제의 발생 원인은 북로당의 일부 하부조직들이 당원 확대에 오히려 당이 약화되고 당의 위신이 저하되는 상황을 이유로 당원성장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66)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의 총화에 관하여-평안남도당 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46. 9. 9.”, 『김일성 선집 1954』 1, 207쪽; “황해도당 당 장성과 신입당원과의 사업정형에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결정서, 1946. 10. 8.”, 『결정집』, 15쪽.

67) 허가이, “勞動黨 唯一黨證授與에 對하여-북조선 로동당 제2차 중앙확대위원회에서의 보고”, 『근로자』 2호(1946), 61쪽.

68) “황해도당 당 장성과 신입당원과의 사업정형에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결정서, 1946. 10. 8.”, 『결정집』, 16쪽.

69)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 132쪽.

70) “평양시 동구역 당단체의 당 장성문제에 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3차

돌격대를 조직하여 미흡수 군중의 숫자를 조사하고 당에 흡수할 방침을 세우기도 하였다.<sup>71)</sup> 이에 대하여 북로당 중앙상무위원회는 평양시 동구역 당조직과 평양시 당부의 당 성장방식을 시정하도록 하였지만 이런 일은 각 하급당부에도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문제였다.<sup>72)</sup> 조공분국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근로인민의 북로당이 구성되었다 하여 전 근로인민을 당에 흡수하려 하거나, 목표를 세우고 하급당에 책임 수량을 내려보내기도 하였고, 다른 당에 가입하지 않은 인민들은 모두 흡수하려고까지 하였다.<sup>73)</sup>

이에 대하여 북로당 제3차 중앙위원회는 당 성장사업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하급당조직에서 당조직노선과 이탈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였다. 당이 조합화되고 당과 사회단체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당과 근로인민을 혼동하는 경향마저 있었다<sup>74)</sup>는 것이다. 그러나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자들이 당에 들어오게 된 것을 하급당조직의 잘못이라고 규정할 수만은 없다. 북로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적극적인 당 성장사업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급 당조직은 사업지역내의 노동자나 농민들을 당에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동자, 농민들 속에서 당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sup>75)</sup> 양적인 성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원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당원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주요 배경으로는 당의 국가기구 장악, 토지개혁과 같은 ‘민주개혁’의 실시, 북로당의 ‘이미지 변화’를

회의 결정서, 1946. 9. 14., 『결정집』, 5쪽.

71) 앞의 글, 5쪽.

72) 앞의 글, 5~6쪽.

73) 허기이, “黨 長成과 黨組織及黨政治事業에 對한 諸課業—북조선 로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보고”, 『근로자』 3, 4호(1947), 40쪽.

74) 북조선 로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 결정(1946. 11. 6), “유일당증 수여에 관하여”, 『북한 관계사료집』 1, 178쪽; 북조선 로동당 중앙본부의 당 성장문제에 관한 결정서를 각급 당단체들이 접수한 이후 관문주의적 경향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었다(같은 곳).

75) 朴昌玉, “北朝鮮 勞動黨 規約 解釋”, 『근로자』 3호(1947), 51쪽.



들 수 있다. 당원 중에 1.2%나 되는 상인과 기업자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점도 주목된다.<sup>76)</sup> 당조직강화에는 문제가 있지만, 노동자와 농민뿐 만 아니라 상인, 기업자들도 북로당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낄 만큼 북한사회에서의 북로당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로당이 스스로 “우리당의 가장 큰 힘은 우리 당이 인민과 친밀하다는 점”이라고 평가하고<sup>77)</sup> “금일 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우리 로동당을 그렇게까지 자기의 친애하고 신입하는 정당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sup>78)</sup>고 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개혁을 이룬 점도 주목해야 한다.

#### 4) 당조직의 강화를 위한 당원 숙정

북로당은 당원의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조직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북로당은 당원의 급격한 성장으로 당의 기본조직인 세포생활이 일반적으로 미약하고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었으며 세포회의도 제때에 소집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sup>79)</sup> 이 때문에 당을 공고히 하는데는 교양사업이 매우 중요했으며, 당강령과 당규약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당조직이 연구할 것을 결정하였다.<sup>80)</sup> 또한 강령과 규약의 해석사업을 비당원 군중에게도 광범히 조직하도록 하였다.<sup>81)</sup>

양적 확대와 당원의 교양만으로 시급하게 당조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에 합당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청당사업이 불가피해졌다.

76) 허가이, “黨 長成과 黨組織及黨政治事業에 對한 諸課業—북조선 로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보고”, 『근로자』 3, 4호(1947), 40쪽.

77) 박일, “宣傳의 意義”, 『근로자』 6호(1947), 17쪽.

78) 朴昌玉, “北朝鮮 勞動黨 規約 解釋”, 『근로자』 3호(1947), 48쪽.

79) 북조선 노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 결정(1946. 11. 6), “유일당증 수여에 관하여”, 178쪽.

80) “로동당 강령과 규약 연구에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결정서, 1946. 9. 14.”, 『결정집』, 3쪽.

81) 앞의 글, 5쪽.

1946년 9월 북로당 중앙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당원에게 유일당증 수여가 결정<sup>82)</sup>되었고 동시에 공민증 교부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공민증 교부사업은 주민구성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을 병행하여 ‘반동분자들의 적발’<sup>83)</sup>도 동시에 의도하였는데 공민증 교부사업이 유일당증 교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을 것임은 당연하다. 당증 허여사업이 단순한 기술적 사업이 아니라, 당내의 불순 분자, 모리배들을 제거하고 사상통일을 높이어 당을 강화하는 사업이었다.<sup>84)</sup> 북로당의 당원 확대정책은 당내에 있는 ‘낙후분자’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져왔던 것이다.

북로당의 유일당증 수여사업으로 당내에 많은 문제도 생겼다. 북로당 중앙 상무위원회는 1946년 12월 27일에 당증 수여사업을 당 숙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출당결정을 신중하게 재검토하도록 하였다.<sup>85)</sup> 하지만 북로당이 이미 1946년 12월부터 1947년 2월 20일까지 북로당 유일당증 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표 3>과 같은 숙청을 하도록 결정하였던 터이라 이미 많은 숙청이 있었다.<sup>86)</sup> 1946년 초의 당내 숙청과는 달리, 1946년 말의 숙청은 북로당의 당원기반이 크게 확장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유일당증 수여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원들을 함부로 출당시키는 현상이 있었는데 평안남도 당조직에서는 출당원들 중에서 34%가 ‘직무태만’과 ‘규율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출당당하였다. 또 평안남도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과오의 경중에 관계없이 출당시키거나, 일제기관에 복무한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출당시

82) “현시기 당단체들과 정권기관들 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에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및 각 도당위원회 위원장,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련석회의에서 한 결론, 1947. 1. 10.”, 『김일성전집』 5, 27쪽.

83) “공민증 교부사업을 진행할 데 대하여—북조선 름시인민위원회 국, 부장회의에서 한 결론, 1946. 8. 9.”, 『김일성전집』 4, 79쪽.

84) 허가이, “勞動黨 唯一黨證授與에 對하여—북조선 로동당 제2차 중앙확대위원회에서의 보고”, 『근로자』 2호(1946), 62쪽.

85) “평안남도 및 각 도당 단체의 당증수여사업 진행 정형에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결정서, 1946. 12. 27.”, 『결정집』, 101~102쪽.

86) 북조선 로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 결정(1946. 11. 6), “유일당증 수여에 관하여”, 『북한 관계사료집』 1, 180쪽.

### <표 3> 당중 수여사업 시 숙청대상

- ① 착취계급(자본가, 기업가, 상인등) 또는 일본 및 기타 제국주의 행정기관과 민주주의 민족해방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민족 반동조직, 반공단, 대화숙, 록기연맹 등)에 복무하던 자들로서 로동당에 가입하여 당을 손상케하는 자
- ② 토지개혁에 숙청당한 지주계급 중에서 로동당에 가입하여 당을 손상케 하여서 인민의 정권을 약화시키는 자
- ③ 종교단체의 신도 혹은 간부로서 로동당에 가입하여 당과 인민정권을 손상케하는 자
- ④ 당내에서 사상통일을 반대하고 종파적 사상과 행동으로서 당규약을 위반하여 당을 약화시키는 자
- ⑤ 탐위와 탐음으로서 당과 인민정권을 손상케 하는 자
- ⑥ 당원으로서 모든 민주개혁의 제과업과 그를 위한 인민위원회의 법령(국가산업, 재정정책, 로동법령, 현 물세) 로동규율을 준수하지 않으며 집행하지 않아야 인민정권과 경제를 약화시키는 자
- ⑦ 사생활 또는 공적생활에 있어서 로동당의 위신과 도덕을 손상케 하는 자들

출처 : 북조선로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 결정(1946. 11. 6), “유일당중 수여에 관하여”, 『북한관계사료집』 1, 180쪽.

켰다.<sup>87)</sup> 이것은 합당 후 미루어 오던 청당사업이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되었음을 알려준다.<sup>88)</sup>

87) “유일당중 수여사업을 바로 하며 녀성동맹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46. 12. 27.”, 『김일성전집』 4, 494~495쪽.

88) 일부 당단체들에서는 유일당중 수여사업 과정에서 당원들을 함부로 출당시켰는데 평남 강동군 당단체에서는 당중 수여시에 26%의 당원을 출당시켰고, 5도 통계표에 의하면 당중 수여사업으로 9%의 당원을 출당시켰는데 그중 ‘당사업에 태만’, ‘불신임’, ‘우연히 당에 가입한 자’라 하여 출당된 자가 70여%를 차지하였다(“평안남도 및 각 도당 단체의 당중 수여사업 진행 정형에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의 결정서, 1946. 12. 27.”, 『결정집』, 101쪽); 또 한 자료에는 출당된 당원이 심각한 당원의 5%나 되며, 이중에서 40%는 당의 강령과 규약을 위반한 이유로 출당되었다. 평안북도 어느 군당에서는 농촌의 일부 당원이 당비를 제때에 내지 않았다고 당규약 위반자로 규정하여 출당시켰는가 하면, 함북 북청군의 어떤 당원은 과실 몇 알을 장마당에 내다 팔았다고 하여 모리간상배로 몰아 출당시켰다(“현시기 당 단체들과 정권기관들 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에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및 각 도당 위원회 위원장,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련석회의에서 한 결론, 1947. 1. 10.”, 『김일성전집』 5, 28쪽).

지난날의 당 성장사업에 우경적 편향이 있었던 연유로 당에서 제거해야 할 불순이색분자가 전체 당원수의 10%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김일성은 이에 대하여 지나친 평가로 비판하였다.<sup>89)</sup> 1947년 김일성은 일부당원들의 과오를 이유로 함부로 당에서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정치사상 의식수준이 낮고 대중과의 사업 방법을 잘 모르는데 이유가 있다<sup>90)</sup>고 보았다. 김일성의 주장은 확연히 신입당원에 호의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유일당증 수여사업에서 편향이 나타나게 된 주요한 원인을 일부 당 일꾼들이 이 사업을 청당사업으로 잘못 인식한데 있다고 하였다.

여하튼 유일당증 수여사업과정에서 모든 당조직들과 조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던 당원들을 당규약의 요구대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북로당은 당내 규율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sup>91)</sup> 북로당이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북한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당원의 정리와는 별도로 당원증가는 계속되어 1946년 11월 3일 선거때 하급당조직에서 마찰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민주당의 일부 간부들이 선거를 계기로 당원을 늘려 정권기관에서 자기당의 세력을 확대하려고 무원칙하게 입당을 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북로당과 청우당의 일부 지방조직들에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당원을 늘렸다.<sup>92)</sup> 당이 사회단체에서 맹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쉽게, 조합식으로 아무 사람이나 당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던 것이다.<sup>93)</sup>

1947년 3월에 북로당은 65만의 당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sup>94)</sup> 여러 당조직

89) “현시기 당단체들과 정권기관들 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에 대하여”, 28쪽.

90) “대중지도방법을 개선하며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데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 결론, 1947. 3. 15.”, 『김일성저작집』 3, 176쪽.

91) “북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47. 2. 22.”, 『김일성전집』 5, 217쪽.

92) “면, 리(동)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북조선 민주주의민족 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한 결론, 1947. 1. 11.”, 『김일성저작집』 3, 10쪽.

93) 앞의 글, 10쪽.

94) 1947년 7월에도 65만 당원으로 주장하고 있다(“소미공동위원회 공동결의 제5·6호에

들에서는 개별적 입당절차를 지키지 않고 아무런 심사나 검열을 하지 않고 입당시켰다. 심지어 일부 당조직에서는 하급당조직에 받아들일 사람수를 정하여 내려보낸 경우도 있었으며 하급당조직에서는 입당자수를 채우는데 치우치기도 하였다.<sup>95)</sup> 이런 무원칙한 입당조직의 반복으로 당내에 조직생활과 정치생활을 체험하지 못한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한 조직의 약화가 나타났다.

조직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이 당원을 계속적으로 확장하였던 것은 이 시기의 북한정세가 당원에게 노동과 생산에 주요임무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즈음에 북로당이 요구하는 당원의 자격이 사상보다는 노동성실성이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당원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는데 보안간부 훈련소의 일부 군인당원들조차도 해방 후 북한에서 실시한 제반 민주주의적 시책들의 정당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sup>96)</sup>고 비판하였다. 당원들의 정치사상 수준은 높지 못했던 것이다. 당원들에게는 정치사상적 수준도 중요하였지만 그보다는 ‘건국사상 총동원운동’과 노동현장에서의 성실성, 계급적 각성이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북로당과 당원들은 서로 조직내의 갈등으로부터 부분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합당 당시 37만 당원의 북로당은 창립 1주년만에 68만의 당원을 가진 대중정당으로 성장하였다.<sup>97)</sup> 1946년 말의 15세 이상 성인인구가 5,844,703명이었으므로 15세 이상 성인 대비 당원비율은 거의 11.6%에 달하였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수준은 낮다<sup>98)</sup>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1947년 8월의 당원

대한 해답서”, 『북한관계사료집』 1, 219쪽).

95) “일부 당 단체들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유와 결함을 퇴치할 데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 보고, 1947. 3. 15.”, 『김일성저작집』 3, 165쪽.

96) “현시기 당 단체들과 정권기관들 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에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및 각 도당위원회 위원장,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련석회의에서 한 결론, 1947. 1. 10.”, 『김일성전집』 5, 29쪽.

97)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 로동당, 1947. 8. 28.”, 『김일성저작집』 3, 396쪽.

98) “중앙당학교 6개월반 제3회졸업식에서 한 훈시, 1947. 8. 1.”, 『김일성저작집』 3, 366쪽.

#### <표 4> 당원 증가수

시기	당원수	성분 (노동자)	(빈농)
1945년 10월	1,000		
1945년 12월	7,000		
1946년 5월	43,000		
1946년 7월	100,000		
1946년 8월	160,000		
1946년 8월 합당직전	276,000		
1946년 8월 합당	366,000	73,000	185,000
1947년 3월	650,000		
1948년 1월	708,000~750,000 725,762(당대회)	143,000	374,000
1956년 1월	116,4945		

출처: "당 중앙위원회사업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 함경남도 제2차 대표대회에서 한 보고, 1948. 2. 21.", 『김일성저작집』 4, 150쪽; "북조선 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 296쪽, 335쪽;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56. 4. 23.", 『김일성저작집』 10, 258쪽.

\* 1945년 10월은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21쪽.

\* 1946년 5월, 7월, 8월은 소련군 제25군 민정국, "朝鮮の政治政勢に關する調査", 서동만,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1945~1961)", 77쪽에서 재인용.

성분 중 노동자 성분이 19.9%였으나 직접생산에 참가하는 노동자 당원수는 16.9%였고, 3,637명(약 5.3~5.5%)의 상인, 기업가 당원이 있었다.<sup>99)</sup> 또한 14.1%의 당원이 국문을 해득하지 못한 실정에 있었다.<sup>100)</sup>

2차 당대회의 결정을 통해보면 북로당은 이 시점에서 세포마다 2~3명의 열성당원을 만족스럽게 확보하지 못한 단계였다. 1947년 초에도 노동자들이 다른 정당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sup>101)</sup> 이것은 북로당이 이 시점에 모든 노

99) "북조선 로동당 당원 성원에 관한 1947년 8월 1일 현재 통계에 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41차 회의 결정서, 1947. 8. 21.", 『결정집』, 273쪽.

100) 앞의 글, 274쪽.

동자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북로당의 당원확보가 질적 담보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sup>102)</sup> 이즈음 김일성은 모집식의 당 성장사업을 비판하고, 입당대상자들을 철저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실천활동을 통하여 단련시킨 다음에 당에 받아 들여야 한다<sup>103)</sup>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원 확대정책에 영향을 미친 다른 정치적 요인은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미소공동위원회의 활동이었다. 미소공위의 임시정부 수립 목표를 의식하고<sup>104)</sup> 있던 북로당은 미소공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당원포섭정책을 펴던 면도 있다.<sup>105)</sup> 북로당 제8차 중앙확대위원회의 “소미공동위원회공동결의 제5·6호에 대한 해답서”를 보면 “임시정부는 조선의 민주주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가 그 당원수 또는 단체원수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 당 또는 사회단체의 영향력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일정한 수의 대표자의 합동회의에서 국무총리 및 부총리와 기외의 정부성원을 구성한다”<sup>106)</sup>고 결정하여 정당의 당원수를 중요한 영향력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었다.

이것이 북로당의 당원확장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로

101) “함경북도당 단체의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제19차 상무위원회에서 한 연설, 1947. 1. 17.”, 『김일성저작집』 3, 41쪽. 홍남인민공장 노동자 1만여 명중에서 수천 명이 북로당에 입당하고 2천여 명이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이들은 서로 적대시하여 감정적으로 대립하였다(“제6차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의 최용진 동지의 결론”, 『사료집』 8, 8쪽).

102) 김일성은 한국전쟁 후라는 변수가 있지만 100만 당원도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초안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6. 1. 21.”, 『김일성저작집』 10, 22쪽).

103) “산을 끼고있는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평안남도 양덕군 구지골 농민들과 한 담화, 1947. 9. 30.”, 『김일성저작집』 3, 455쪽.

104) “소미공동위원회공동결의 제5·6호에 대한 해답서”, 『북한관계사료집』 1, 225쪽.

105) 남로당도 제2차 미소공위 재개를 전후하여 ‘백만당원’의 구호를 내걸고 모집식 방법으로 당원 5배가, 10배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시마다 당조직이 노출 파괴되고 지도적 지위에 있던 자들이 검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방인후, 『북한 ‘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 135쪽).

106) “소미공동위원회공동결의 제5·6호에 대한 해답서”, 『북한관계사료집』 1, 225쪽. 국무총리는 임시정부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북한관계사료집』 1, 222쪽).

당 중앙의 비판은 팽창을 질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일 뿐이며 팽창이 갖는 의도는 북로당의 대중정당화를 통하여 한반도내의 기반을 강화시키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 4. 북로당 2차대회 후의 당원정책 변화

### 1) 당원의 정예화 지향

북로당 2차 대회에서 당규약이 개정되었는데 당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정들이 있었다. 당원 입당시의 보증인 규정이 강화되었다. 해방 후 조공분국이 당원 확충을 위하여 완화하였던 입당자격이 다시 강화된 것이다. 이로써 2명이 보증을 하게되었는데, 보증인은 당연한이 1년 이상 되어야하고, 피보증인과 적어도 1년 이상 함께 사업하면서 서로 알아야 하며, 피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sup>107)</sup> 입당 청원자가 보증인과 반드시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종사한 이력을 요구한 것은 청원자가 동일한 직장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고 정되어 작업해야 당원이 될 수 있다는<sup>108)</sup> 노동 성실성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노동력 유동이 심각한 상태에서 동일한 직장에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당원의 성장 방향을 잡으려 하였던 것이다.<sup>109)</sup>

이처럼 입당 자격을 강화한 것은 북로당의 당세가 안정되었음을 보여준다. 75만의 당원을 확보한 북로당은 대중정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며, 조합주의적 모집식 경향과 일부당원의 무책임한 추천에 의한 당내의 통일성 약화가 오히려 문제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당원의 확장보다는 정예화가 요구되는 시기가 되었던 것이다.<sup>110)</sup>

---

107) “북조선 로동당 규약-2차 당대회”, 앞의 책, 467쪽.

108) 황규진, “신입당원 교양에 대하여”, 『근로자』 7월호(1948), 38쪽.

109) 앞의 글, 40쪽.

110) 하지만 이후에도 입당절차와 규약상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신입당원을 다량적으로 당



북로당 2차 대회 이후에는 “검열된 근로자들 중에서 가장 충실한 자들만을 개별적 입당절차를 통한 당성분의 개선, 타당출신으로서 성분과 직업이 생산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들 중에서 우수한 분자”<sup>111)</sup>를 당 성장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전체당원과 신입당원에게 일제하 인민해방운동사, 로동당의 탄생과 발전, 역할”<sup>112)</sup> 등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교양을 시키도록 하였다. 북로당 2차 대회에서는 “당적 원칙의 순결과 당내의 엄격한 규율을 위한 철저한 투쟁, 당의 임무와 당원의 의무에 대한 자각적 관계 교양, 당조직 지도적 간부들의 성분 개선, 민주건설과 근로대중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당원 등용”<sup>113)</sup>을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당원의 질적 강화를 지적한 것이다.

2차 대회 후의 당 성장사업 목표의 특징은 당원의 확충보다는 질적 개선이었는데 특히 타당 출신의 입당 허용과 당원에 대한 교육의 강화, 당원의 열성 제고와 모범적 역할의 요구는 이전의 무차별적인 당원확장 시기와는 차이가 있었다. 북로당 2차 대회 후 9개월이 지난 1949년 2월에는 당세포와 초급당조직 및 면당조직들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80여만 명의 당원을 확보하여 공장, 농촌, 어촌 모두에 당세포가 조직되었다.<sup>114)</sup>

북로당은 분명 당원확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북로당은 정치, 경제, 사회, 사상적으로 북한사회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당자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평양시 북구역당위원회 산하 거의 모든 당세포들에서는 제2차 당대회 이후 1년 동안 단 한 명도 입당시키지 않았고, 강선제강소 초급당위원회 산하 대부분의 당세포들에서도 1949년 상반기 동안 당 성장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았으며, 다른 도 당조직에서도 당 성장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일이 나타났다.<sup>115)</sup> 이상의 맥락을 살펴보면 북로당은 2차 당대회

내에 입당시키는 일이 근절되지 않았다(“북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 결정서(1), 1949. 2. 12.”, 『북한관계사료집』 1, 479쪽).

111) “북조선 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앞의 책, 447쪽.

112) 앞의 글, 141쪽.

113) 앞의 글, 446쪽.

114) “당 단체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북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한 결론, 1949. 2. 13.”, 『김일성저작집』 5, 50쪽.

후 정부수립과정을 거치면서 당원의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강화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김일성의 '당조직 원칙' 실현을 통한 당내 주도권 강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당 주도세력은 당원확장 정책에 따라 당원은 팽창시켰지만, '공산당의 조직원칙'들을 확고히 적용하였다. 비록 공산당에서 노동당으로 당명이 변하고 대중정당을 표방하였지만 당조직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북로당이 모범으로 삼아 제시한 소련공산당 당조직 원칙의 중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16)</sup>

- 중앙위원회와 같은 통일적 당지도기관을 당대회 사이에는 수위로 삼아 소수는 다수에, 개별적 조직체는 중앙기관에, 하급조직체는 상급조직체에 복종하는 중앙집권제의 원칙 위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 당조직의 구성과 성원은 직업적 혁명운동자와 광범한 외곽단체망·당원대중의 두 부분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노동계급의 가장 우수한 혁명적 분자들을 집결시킨 단체가 당이다.

- 당원은 공산주의 사업에 충실한 사람중에서 반드시 일정한 후보당원 연한을 걸쳐 엄중하고 개별적인 심사로서 입당시켜야하며, 계속적으로 당의 성분을 개선시켜야 한다.

- 당원은 당강령만 승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령의 실천과 당결정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수의 당원에 의하여 결정된 것은 각개 당원들에게 있어서 법으로 된다.

115) “당대렬을 질량적으로 강화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한 결론, 1949. 7. 8.”, 『김일성전집』 9, 348쪽.

116) “당건설(강의요강)”, 『북한관계사료집』 10권, 587쪽, 606쪽, 621쪽, 622쪽, 625쪽, 631쪽.

하부는 상부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은 북로당의 운영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공산당조직의 원칙은 상급기관의 결정이 하부기관에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 원칙은 해방 전 조선공산당이나, 중국공산당 내에서 활동한 연안계나, 김일성과의 만주항일유격대에서도 일관된 것으로 공산주의자라면 모두가 준수해야 할 당조직 원칙이었다.

조공분국의 성립과정에서 벌어진 대립의 와중에서도 김일성의 당중앙(박헌영)에 대한 복종의 형식이 유지되었다. 김일성이 토지개혁 후 지지기반이 확충되고 당내 영향력이 제고되기까지 당중앙(박헌영)의 지지를 밝히면서, 박헌영 지지세력을 견제해 갔던 점도 이 원칙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당내 위상강화에는 당조직 원칙에 따라 소련계<sup>117)</sup>와 연안계 출신간부들이 김일성에게 복종한 것은 중요한 힘이 되었다.<sup>118)</sup>

이 같은 북로당의 당조직 원칙이 모든 당원들에게 요구되었다. 당원의 확장, 당조직과 규율의 강화과정은 북로당의 성장과정이었으며, 이것은 곧 김일성의 위상강화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김일성이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하게 된 바탕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투쟁의 명성, 중앙국가기구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장의 취임, 토지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빈농의 지지확보, 젊은 빈농과 노동자들의 북로당 당원으로서의 성장, 일제하 투쟁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 내부에 확립되어 간 당조직에 대한 복종 원칙 등이 종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북로당 2차 대회는 김일성에게 ‘승리’를 안겨준 대회였다고 할 수 있다. 북로당 창립기에만 하더라도 남로당의 위상이 확실하였으나, 1946년 말에 박헌영이 월북하여 북로당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남로당의 지지기반은 나날이 약화되었고, 북로당은 ‘민주기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북로당의 개혁에 힘입어 북한의 정권기관이 공고화되었으며, 김일성은 북로당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남북로동당 모두의 지도자로서 북한에서는

117) 당 업무를 체계화하고 행정기관을 제도화하는 업무를 맡아 대표적인 역할을 한 허가 이는 소련에서 극동변방 공산청년위원회 조직부장, 끼네기마 시당위원회 비서, 타슈켄트주 양기울 구역당 비서, 히치르치크 구역당 비서 등을 역임했으며, 1940년대 ‘고려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직위에 있었다(임은, 『김일성정전』, 179쪽).

118) 임은, 앞의 책, 165쪽.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 3) 당 하부 질서의 변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미소공위의 결렬로 남북한의 분단은 고착화되어 갔으며, 북한에서도 헌법이 준비되어 헌법을 인민대중에게 학습시키고 있었고, 군대가 창설되어 가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북로당 2차 대회는 그 의미가 특별한 것이었다.

북로당 2차 대회에 참석한 당대표들의 변화를 통하여 당 하부질서의 변화를 알 수 있다.<sup>119)</sup>

북로당 창립기와 2차 당대회 사이의 성분변화는 매우 뚜렷하다. 사무원 성분이 반으로 줄었고, 노동자 성분이 배로 증가한 것이 가장 뚜렷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불과 1년 반 사이에 주어진 이 변화는 북로당이 당원과 간부의 성분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했던 것인데, 전체 당원 중의 노동자 비율과 대비하면(<표 4>에 따르면 1948년 1월의 빈농과 노동자 당원의 비율은 2.6 : 1) 북로당 간부에서의 노동자 성분이 갖는 중요성과 역할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로당이 지향하는 당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데, 노동자 중심의 정당

119) <표> 연령별 당대표

연령	20~30	31~40	41~50	50~
인원 창립	229	417	129	27
인원 2차	280	540	143	27
비율 창립	28	52	7	3
비율 2차	28.3	54.6	14.4	2.7

출처 :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 110쪽 ; “북조선 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 422쪽.

북로당 창립대회와 2차 대회에는 당대표들의 연령에도 작지만 차이가 있었다. 41세 이상의 연령층이 감소하고, 40세 이하 연령층이 증가하여 대체적으로 간부들의 연령이 젊어졌다.

### <표 5> 당대표의 사회성분 비교

사회성분		노동자	농민	사무원	기타
인원	창립	183	157	385	76
	2차	461	269	232	28
비율 (%)	창립	23.0	20.0	48.0	9.0
	2차	46.6	27.0	23.4	3.0

출처: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 110쪽; “북조선 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 421쪽

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직업별 당대표의 비교에서 주목할 점은 2차 당대회 때에는 생산에 참가한 노동자(24.8%),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20.6%), 생산 기술자와 지배인(5.7%), 교원(2%) 등 실제 근로자가 당대표의 절반 이상을 넘었다는 점이다. 직업혁명가들이 주역이었던 창립 당시의 상황과는 당 간부 구성원의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북로당의 정책 중심이 초기의 정치적인 국가 기구 건설에서 경제 건설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주며, 당내의 하급 간부진이 새로이 보충되었음을 보여준다.

북로당의 주축이 해방 후 입당자(93.5%)로 구성되었으며, ‘해방 전 운동자’들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해방 후에 입당하여 북로당 창립시 대표로 되었던 당원들 중에서 최소한 114명이 대표에서 탈락한 점도 세력 재편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sup>120)</sup> 즉 당대표의 30.4%는 북로당 창립 이후에 입당한 새로운 간부들이었다.

일제하에서 투옥되었던 경력자의 수가 1년 반만에 감소하였고(30%→

120) 1946년 8월 28일은 북로당 창립대회가 시작된 날이다. 따라서 당년별의 구분이 46. 8. 28로부터 시작하는 당원들의 일부는 신민당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신민당 출신으로 당대표에 참가하게 된 인원의 최대수는 245명(24.7%) 이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표 6-1> 직업별 당대표(창립시)

1945년 1월15일 전 직업	직업혁명가	노동자	농민	사무원	기타
인원	112	142	120	296	131
비율(%)	13	19	15	37	16

출처: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앞의 책, 110쪽.

<표 6-2> 직업별 당대표(2차 당대회)

직업	당	생산에 기관 일꾼	직접 참가한 노동자	농 사에 사하는 농민	농 생산기술 종 와 (농산기술 자 포함)	교원 (교육부 문전부 포함)	의사	문예인	정권기 관일꾼 (군대 내 무국 포함)	사회 단체 일꾼	기타
인원	221	246	204	56	20	7	4	162	63	7	
비율(%)	22.3	24.8	20.6	5.7	2.0	0.7	0.4	16.4	6.4	0.7	

출처: "북조선 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앞의 책, 422쪽

20.7%), 지하운동 혹은 무장폭동 등으로 투쟁했던 경력자들이 절대수와 비율에서 절반으로 감소되었으며(53%→25.6%), 모범노동자 대표가 18.8%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건설에 북로당의 당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고도 할 수 있다. 동시에 국내계의 지지기반이 크게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sup>121)</sup>

당대표들의 학력은 창립당시에 가장 많은 비율이었던 중학 정도가 반 이하로 줄고 소학 정도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북로당의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북로당이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을 당의 근간으로 흡수한 데 이유

121) 서동만, “北朝鮮における 社會主義體制の 成立(1945~1961)”, 109쪽.

<표 7> 당년별 당대표

당년별	해방전	해방후			
		45. 8. 15. ~ 46. 7. 28.	46. 7. 29. ~ 46. 8. 27.	46. 8. 28. ~ 47. 12. 31.	47. 1. 1. ~ 47. 12. 31.
인원	창립 62	739*			64
	2차 584	41	245	56	
비율	창립 7	93			6.5
(%)	2차 59.0	4.1	24.7	5.7	

출처: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 110쪽; "북조선 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앞의 책, 422쪽; \*총 801명에서 62명 차감.

<표 8> 해방전후 투쟁 경력 비교

	해방전 1년 이상	해방후		
		갑급자	지하운동 혹은 무장폭동 등	인민경제건설에서 표창 받은 모범 공로자
인원	창립 263	427(외국에서 혁명)		
	2차 206	253(국내외)	186	
비율	창립 30	53		
(%)	2차 20.7	25.6	18.8	

출처: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 110쪽; "북조선 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앞의 책, 423쪽.

가 있으며, 특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와 농민이 대표로 적극 선발된 데 이유가 있다. 또 주목할 점은 대표의 수가 190명 가량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학 학력자가 164명이 줄었고, 대학 정도 학력자가 70명 정도 줄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내의 해방 전 공산주의 운동자들이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차 당대회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에 갑산파로 불리는 김일성의 직

<표 9> 지식별 당대표

지식정도		소학	중학	대학 전문 정도	합계
인원	창립	228	359	214	801
	2차	651	195	144	990
비율	창립	29	45	26	
(%)	2차	65.8	19.7	14.5	

출처: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1, 110쪽; “북조선 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앞의 책, 422쪽

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과거 적색노조와 농조 출신 국내계의 진출은 억제되었다.<sup>122)</sup> 이것은 김일성에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김일성의 지지 세력이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며, 북로당내의 당내 세력지형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북로당 2차 대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공통점을 볼 수 있는데 거의 모든 발언자가 김일성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sup>123)</sup> 김일성만이 완전하게 벗어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북로당의 중앙집권적 조직 운영원칙에 의한 것이지만, 당내의 하부 세력기반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음을 보여준다.<sup>124)</sup>

북로당의 당원확장은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당의 확대강

122) 앞의 글, 110쪽. 소련계는 중앙위원 16인, 후보위원 3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기타 당 기구와 구성은 앞의 글, 110쪽.

123) 북로당 2차대회에서는 주로 국내파가 심한 비난을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정리는 앞의 글, 106~108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124) 그러나 이것이 파벌이 청산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내의 ‘종파’들에 대한 숙청이 일단락된 1957년에도 김일성은 “아직도 엠엘파가 낫다느니, 화요파가 좋다느니 하면서 종파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하였다(“내각성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1차 전원회에서 한 결론, 1957. 9. 23.”, 『김일성저작집』 11, 328쪽).



화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에서의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소련군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둘째, 북로당을 통하여 빈농과 노동자들을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구에 참여케 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지배질서를 변화시켰다. 셋째, 당원의 확장은 김일성의 위상강화와 연결되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의 서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공분국은 1945년 12월의 3차 확집위 때까지도 당원 수는 7천명을 넘지 못하였고, 하부조직의 확대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3차 확집위에서 책임비서가 된 김일성은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당원확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당원의 입당자격을 완화하고, 노동자와 빈농을 중심으로 당원을 확장하였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성립된 조공분국 주도세력은 북임위의 성립과 더불어 토지개혁을 실행하여 빈농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새로운 당원들을 충원함으로써 당내 하부의 조직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였다. 조공분국과 신민당의 합당으로 성립된 북로당은 북한사회 내에서 가장 많은 당원을 가진 주도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북로당은 당원확대를 통하여 대중정당을 추진하였지만, 조공분국을 계승한 당조직원칙은 철저하게 당내의 '종파'를 제거하는 것이었고, 상부의 결정에 대한 하부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로당내에 입당된 당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기반화하는 작업은 당의 최고지도자에게만 가능한 것이었다.

지식인, 상업가, 기타 성분이 36%였던 초기의 조공분국 실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자와 빈농 성분을 높여 갔다. 특히 이론적으로 훈련되지 못하였다해도 생산현장에서 단련된 성실한 노동자에 대한 입당을 적극화하였다. 대대적인 당원성장에 대해 당이 조합화되고 사회단체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김일성은 당원확장정책을 계속하였다.

양적 확대는 북로당의 조직강화를 위한 사업이 가능하게 하였다. 당조직의 강화를 위하여 당원에 대한 교양이 강조되었고, 유일당증 수여사업을 통한 청당사업이 진행되었다. 청당사업의 결과 북로당은 모든 당단체와 당원들이 당 규약상 요구대로 움직이게 하는 당 규율 강화에 성과를 거두었다. 청당사업 이후에도 북로당의 양적 확대는 계속되어 경쟁적으로 당원이 확장되었는데, 당원확장은 정치사상적 수준보다도 '건국사상 총동원운동'과 같은 노동현장에서의 성실성과 계급적 각성이 중요시되었다.

북로당은 최대한으로 당원을 확장하고 세포마다 2~3명의 열성당원을 확보함으로써 다수 당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던 미소공위에 대한 북로당의 대응책이기도 하였다.

북로당의 양적인 당원확장은 1948년 2차 당대회를 계기로 질적인 당원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입당보증인의 수와 자격조건이 강화되었고, 입당을 원하는 자는 적어도 1년 이상은 동일한 직장에서 일을 한 경력을 요구하였다. 안정된 당세를 기반으로 북로당은 당내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당원을 정예화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 것이다.

2차 당대회에 참석한 당대표들도 창립대회와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직업 혁명가들이 주역이었던 창립 당시와는 달리 생산에 참가한 노동자와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 생산 기술자와 지배인들이 대표의 과반수를 넘었다. 또 당대표들의 주축이 해방 후 입당자(93.5%)로 구성되고, 인민경제건설에서 표창을 받은 모범 노동자가 당대표의 18.8%를 차지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중앙당학교와 도당학교 등에서의 새로운 당간부의 양성, 유일제강에 의한 통일적인 교양의 실시 등을 서술하지 않았지만, 이상과 같은 요소들과 더불어 당원확장은 북로당내의 김일성과 하급 간부, 당원간의 연계를 구축하였다.

1948년 2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는 당내의 하부 세력들이 김일성의 지지기반으로 확보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하부의 지지기반이 이후 최고 권력 엘리트간의 권력투쟁에서 김일성이 상대방을 압도적

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일성저작집』 2권, 3권, 4권, 10권, 1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3권, 4권, 5권, 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창순, 『북한15년사』(서울 : 지문각, 1961).  
김학준, 『소련정치론』(서울 : 일지사, 1976).  
방인후, 『북한 ‘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서울 :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북조선 로동당, 『근로자』, 1946(창간호, 2호), 1947(3·4호, 6호), 1948(7호).  
『북한관계사료집』 1권, 4권, 10권, 26권(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서동만, 『北朝鮮における 社會主義體制の 成立(1945~1961)』(동경대 박사학위 논문, 1995).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권(서울 : 돌베개, 1986), 원저는 1972년 간행.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 역사비평사, 1995).  
임은, 『김일성정전』, 서울 : 沃村文化社, 1989(林隱, 『北朝鮮王朝成立秘史—金日成正傳』(自由社 간행물 번역본임).  
안드레이 란쿠프 지음, 김광린 옮김,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서울 : 오름, 1995).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정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1946. 9.~1948. 3.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서울 : 중앙일보사, 1993).

〈Abstract〉

## The Expansion of Members and the Policy Change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Lee Ju Chul* (Korea University, History)

This study explains how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NKWP), the preceding organization of the KWP, was formed in the 1940s. Most existing studies focus on the activities of the top rank and file members to explain the formation of the NKWP. The sub-organizations of the Party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and the attitudes of the common party members toward the overall process of constructing new state of North Korea have been veiled. This study highlights the membership expansion of the Party at the lower level organizations in the local areas.

Although the NKWP was creat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Party(NKCP) and the Korean New People's Party (KNPP) in August 1946, it basically took over the organizational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KCP. The KNPP, which the Yen-an group of Communists established in February 1946, was a party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intellectuals and small bourgeoisi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NKWP, the NKCP led by Kim Il Sung's anti-Japanese partisan group played a major role in the North Korean Interim People's Committee (NKIPC) as a pseudo central government and in the local People's Committees as local self-governing organs. As the NKIPC implemented successful social reforms such as land reform, the NKCP rapidly increased its membership by mobilizing the peasants who were the beneficiaries of the

reform.

There was considerable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Party's membership. In the initial stages of the NKCP, intellectuals, merchants and other elements occupied 36 percent. However the member of farmers and especially workers increas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KWP. The numerical expansion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the Party's local organs and the Party emphasized the education of the new members to become "the faithful workers."

At the second Party Congress in 1948, the NKWP tightened its recruitment policy. For example, a person who wanted to join the Party was required to have at least one-year probation and one guarantor. The NKWP sought loyal and disciplined members, rather than simply expanding its numbers. It made efforts to unite and purify the Party in order to become a hegemonic one capable of playing a major role in constructing a unified Communist country in Korea. In the development of the NKWP, Kim Il Sung utilized the overwhelming power base of the grassroots members to survive the power struggle within the power bloc.